

## 모지 전기통신 레트로관

모지 전기통신 레트로관에서는 ‘통신’을 테마로 전신, 전화의 역사 및 기술을 즐기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원래 모지 우체국의 전화과 청사로 1924 년에 지어졌습니다. 1910 년대부터 1920 년대의 전형적인 다이쇼 모던 양식의 건축으로 삼엽형 아치와 당당한 기둥이 특징적입니다. 2009 년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근대화 산업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화 교환원 체험과 모스 신호 체험도 인기 있습니다.

설계한 이는 일본무도관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건축가 야마다 마모루(1894~1966)입니다. 건설 당시 이 건물은 현대 건축 디자인의 최고봉으로 여겨졌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느끼게 해주는 곡선 계단실이 있고, 최신 방화·방진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었습니다.

완공으로부터 1 세기가 지난 현재, 이 건물은 일본 전기 통신의 역사와 기술을 소개하는 재미있는 뮤지엄으로 거듭났습니다. ‘·’(점, 짧은 신호)과 ‘-’(선, 긴 신호)뿐이었던 모스 신호에서 어디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휴대 전화의 시대가 되기까지 통신 기술이 어떻게 진보해 왔는지 체험과 전시를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전시 내용

1 층 전시 코너에서는 메이지 시대(1868~1912)부터 현대까지 사용된 전화기와 교환기를 전시하며 전화의 발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1876 년에 발명한 전화기를 복원한 것과 1890 년의 가위 벨 전화기, 1896 년의 벽걸이 전화 등이 시간순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980 년대의 가정용 전화기, 1994 년의 화상전화, 2005 년의 최초의 스마트폰, 그리고 오늘날의 휴대 전화 등이 있습니다.

1837 년에 발명된 모스 신호의 송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 교환원이 하는 일을 체험해 보거나 자동 교환기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 대에 약 3kg 이나 나가는 초기 ‘휴대 전화’도 있으니 꼭 손으로 들어 무게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2 층에는 각종 교환기가 있습니다(견학은 예약제). 1926 년에 도쿄에서 처음 사용된 자동 교환기와 1926 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희귀한 타입의 교환기를 볼 수 있습니다.